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22
APR 3 2020

발간년월 2020년 4월 3일 (통권 제12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코로나19 사태로 러시아 경제 상황 악화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LNG시장 침체 전망
- 국제유가 폭락 사태, 미-러-사우디 갈등 고조 및 러시아 북극 석유 생산량 증대
- 러시아, 중국에 석유 공급량 늘리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세 대응
- 러 극동지역, 벙커유 가격 급락
- 우즈베키스탄,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철도 통해 수출 개시

주요 통계

- 2019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코로나19 사태로 러시아 경제 상황 악화 전망

■ 2014년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는 안정적 국내경제 기반 구축에 노력^{a)}

- 미국과 EU의 경제제재가 시작되었던 2014년부터 5년 동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 쇼크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경제구조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
-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러시아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대신 외환보유고 확대, 재정건전성 확보 등 거시경제 지표를 견고하게 하는데 주력해 왔음
- 동시에 추가적인 경제제재로부터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왔음

■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러시아 경제 상황 악화 전망^{a)}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러시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블라디스라프 이노젠프(Vladislav Inozemtsev) 탈산업연구센터(Centre for Post-Industrial Studies) 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2009년 세계 경제침체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소비심리가 안정적이며, 경기침체에 적극적인 통화팽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경제에 비해 러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 실제로 석유가격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루블화 가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음
- 라이프아이젠 은행(Raiffeisen Bank) 경제자문인 스타니스라프 무라쇼프(Stanislav Murashov)는 중국이 우한 사태 이후 3개월 넘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2020년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이 약 1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6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예정이었던 국제경제포럼이 취소됨으로써 시진핑 중국 주석을 비롯한 경제사절단 방문이 어려워져 새로운 투자협력 기회가 사라졌음

■ 러시아 중앙은행의 향후 대응이 주목^{a)}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 하락과 금융시장 혼란으로 경기악화, 4% 목표에 못 미치는 물가상승률 등의 상황에 봉착했음
- 전문가들은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무라쇼프 라이프아이젠 은행 경제자문은 중앙은행이 루블화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올 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0.4%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는 러시아 경제가 여전히 세계 경제에 깊이 의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김민수 부연구위원 북방·극지연구실
(guan72@kmi.re.kr/051-797-4787)

참고자료

- a) <https://www.themoscowtimes.com/2020/03/06/coronavirus-could-rock-russias-stable-isolated-economy-a69550> (2020.3.31. 검색)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LNG시장 침체 전망

■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LNG 수요 감소로 전 세계 LNG 시장 어려움 가중^{a)}

-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는 LNG 수요 및 가격 하락하고 있으며, 러시아-사우디 간의 유가 전쟁이 진행 중
- 세계 LNG 시장은 올 초 아시아에서의 LNG 수요하락으로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올 해 LNG 시장 성장률은 2%대로 전망되고 있음
-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수요 감소가 LNG 가격 하락을 견인하면서 아시아 LNG 현물시장에서의 가격이 1월 1 MMBtu* 기준 5.9달러에서 2월 3.4달러로 약 42% 하락했음

* MMBtu: 백만 영국열량단위를 의미하며, 대략적으로 천연가스 1,000입방피트에 해당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LNG 개발계획 차질 우려^{a)}

-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가 2008-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음^{b)}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은 LNG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 또한 대부분의 장기 LNG계약이 석유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석유 가격의 하락은 LNG 개발 계획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국 해운컨설팅 기관인 드류리(Drewry)는 실제로 ‘로부나 LNG 개발 계획(Rovuma LNG project, 15.2 mtpa**), 카타르 북유전 개발확대 프로젝트(Qatar’s North Field Expansion project, 33 mtpa), 드리프트우드 LNG 개발계획(Driftwood LNG, 27.6 mtpa) 및 리오 그란데 LNG 개발계획 (Rio Grande LNG, 27 mtpa)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MTPA: 연간 백만톤(Million Ton Per Annual)을 의미

-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 상당수의 판매가격은 평균 8달러/1MMBtu로 책정하고 있어 이 이하일 경우, LNG 개발 계획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전 세계 LNG 시장의 침체는 LNG 운송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a)}

- 드류리에 따르면 2024년까지 LNG 운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선박은 270척에서 160척으로 약 40% 감소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LNG 개발 계획이 연기되거나 지체될 경우에 선

박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LNG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 및 가격하락, 운송 수요의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LNG 운송 사업에 있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드류리는 보고 있음
- 한편, 야말 LNG 사업에 이어 ‘Arctic LNG-2’사업을 추진 중인 러시아는 2035년까지 공격적인 북극개발 계획을 내놓을 계획임. 이에 전 세계 LNG 시장 침체가 러시아의 북극 LNG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김민수 부연구위원 북방·극지연구실
(guan72@kmi.re.kr/051-797-4787)

참고자료

-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oronavirus-to-create-new-normal-in-lng-shipping/>
(2020.3.31. 검색)
- b) IMF “코로나 경기침체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 JTBC 뉴스, 2020.3.24. 검색

국제유가 폭락 사태, 미-러-사우디 갈등 고조 및 러시아 북극 석유 생산량 증대

■ 美, 사우디의 對 러시아 맞불 조치에 대한 보복성 대책 강구^{a)}

- 이달 OPEC+(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연합체) 회의에서 러시아는 사우디가 제안한 원유 생산량 감축을 거부하였고, 사우디는 원유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산유량을 늘리는 맞불 조치로 대응함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사우디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에게 산유량 증산에 대해 즉시 철회할 것을 압박함
- 미 상원의원들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현재 사우디의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시장 지배력에 위협적이라고 하며, 사우디에 대한 관세, 무역 제한, 불공정무역 조사 등의 보복성 대책까지 주문한 상황임
- 또한 사우디 주둔 미군을 철수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사우디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감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임

■ 러시아, 북극 석유 생산에 박차^{b)c)}

- 러시아 최대 가스회사 가즈프롬(Gazprom)과 석유회사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는 올해 북극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북극에서의 생산량은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30%로 증가했다고 밝힘
- 러시아는 노비항(Novy Port)의 석유 생산량을 작년 770만 톤에서 올해 800만 톤(160,000 BPD)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극 프리라즐롬노예(Priarazlomnoye)에 19개의 석유정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현재 북극 석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Rosneft의 Vostok 석유 프로젝트는 현재 유가 상황에도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러시아 신용 평가기관(Analytical Credit Rating Agency, ACRA) 타누르코프(Tanurkov) 국장은 국제유가 하락은 전 세계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산유량 감소와 그에 따른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참고자료

- a) <https://www.cnn.com/2020/03/30/cruz-warns-saudis-to-stop-using-oil-in-economic-warfare-against-us.html>(2020.3.30. 검색)
- b) <https://www.oedigital.com/news/476909-gazprom-neft-to-boost-arctic-oil-production>(2020.3.23. 검색)
- c) <http://www.worldoil.com/news/2020/3/17/the-oil-price-war-russia-helped-create-complicates-their-arctic-plans>(2020.3.23. 검색)

러시아, 중국에 석유 공급량 늘리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세 대응

■ 국제유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3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힘

- 3월 말에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의 연합체인 OPEC+의 원유 감산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추가 감산 합의가 결렬되면서 4월부터 원유 증산이 기정사실화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의 '가격 전쟁'에 돌입하며,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하루 원유생산량을 25% 이상 증산한 1,23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 인하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 지역, 특히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인 대응에 여러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정유사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자재 수입을 거부한다고 밝혀 사우디아라비아는 진퇴양난에 빠짐

■ 중국은 유럽의 수요 감소와 유가 급락을 기회로 활용, 러시아로부터 사상 최대인 160만 톤의 석유 구입

- 코로나19 사태가 회복기에 접어든 중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 전쟁을 틈타 원자재 비축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음
-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160만톤의 원유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는 유럽에서 줄어든 원유 수출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함

■ 러시아 정유사는 유가 폭락으로 자본비용의 20%를 절감 가능하며, 원유 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유가 급락에 따라 엑손모빌, 셰브론, 사우디 아람코, 셸, 에니 등 글로벌 석유 기업이 잇따라 자본 및 운영비 감축 계획을 발표함
- 국제 평가 기관인 피치의 드미트리 마린첸코 이사는 “만약 유가가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 석유회사도 예산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보다 루블화 기준으로 10~20% 더 낮은 금액일 것”이라고 분석함
- 러시아 석유 기업은 정제, 마케팅 및 기타 활동 분야에서 비용을 축소할 것이며 생산에는 영

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015~2016년 석유파동 시기에도 러시아에서 신규 대형 프로젝트가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저렴한 석유 가격이 러시아의 추가 시추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고 평가함

김현진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yunjink24@gmail.com)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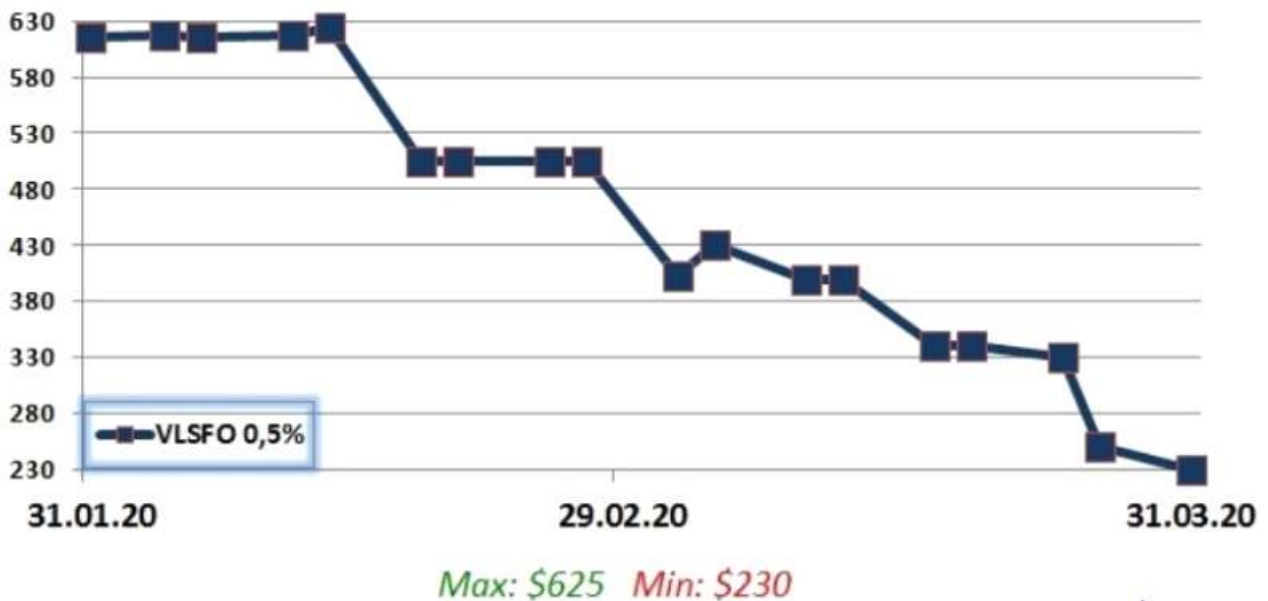
- a) <https://tass.ru/ekonomika/8111945> (2020년 3월 29일 검색)
- b) <https://www.gazeta.ru/business/2020/03/27/13024561.shtml> (2020년 3월 29일 검색)
- c) https://www.mk.ru/economics/2020/03/27/kitay-kupil-u-rossii-rekordnyy-obem-nefti-saudit-y-proigryvayut.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2020년 3월 29일 검색)

러 극동지역, 벙커유 가격 급락

■ 블라디보스톡 항만의 벙커유는 톤당 220달러, 선박용 경유(MGO)는 톤당 410달러, 저유황연료(VLSFO)는 230달러로 하락

- 국제유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원유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공급을 급증하기로 결정했으며,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폭락했음
- 그에 따라 2020년 1월 톤당 600달러에 달하던 극동지역의 벙커유 가격은 급락하여 3월 200달러 대까지 하락했음

그림. 블라디보스톡 항만의 벙커유 가격 변화 추이



자료: <http://portnews.ru/news/293721/>(검색일: 2020.04.01.)

김엄지 연구원 북방·극지연구실
(051-797-4776, umjikim@kmi.re.kr)

올해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신기술 적용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트렌드는 식품(신선제품, 배달음식 등) 배송량 증가, 물류부동산 투자 증가, 해외전자상거래 기업의 러시아 진출 부진, 신기술 적용 등으로 볼 수 있음

- 러시아는 정보통신기술(VR 및 AR 기술, 챗봇기술 등) 및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년 24%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서는 낙후화된 물류인프라 및 시스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에 따라 러시아 물류업 및 창고업 관련 기업은 새로운 기술 및 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융화되어 성장하고자 함

그림.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2016~2023)



자료: <https://webtu.ru/blog/15-trendov-e-commerce-2019/>

■ 물류자동화시스템 개발기업인 악셀로트(AXELOT)의 아르쭘 돌기흐(Artem Dolgikh) 대표는 전자상거래용 창고운영시스템은 B2C모델에 따라 구축 필요하다고 밝힘

- 전자상거래용 창고는 일반 매점처럼 크기 및 기능별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창고 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하며 신속하게 제품 출고가 가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때에 신뢰 가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아르쭘 돌기흐 대표는 전자상거래용 창고운영시스템은 첫째, 반송 및 반환되는 제품을 상태별로 자동 분류하거나 등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전자상거래업계 특성상 한 명의 직원이 다양한 종류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적 전략을 구축해야함
- 셋째, 전자상거래용 창고운영시스템은 메커니즘이 완벽해야함. 예를 들면,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한 배송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 상품 준비 시 동선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운송회사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송관리시스템(TMS)과 연계하는 등이 필요함

■ 물류분야 IT솔루션 대표기업인 안트-테크노로지스(ANT Tekhnologis)의 알렉산드르 우소프(Aleksandr Usov) 대표는 전자상거래용 창고 운영시스템은 데이터의 신속처리 기능 필요하다고 강조

- 전자상거래용 창고운영시스템의 특징은 다양한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급업체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저장시스템을 관리하고, 가장 최적화된 배송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외에도 제품의 정확한 무게, 크기, 특성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제품의 특징에 맞는 배치 및 보관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상 생기는 반송물품에 대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예를 들면, 소규모 온라인 상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도록 해야 함. 또한, 시즌에 따라 주문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상품별로 주문량을 예상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환이 빨라야 함

■ 전자상거래 대표 배송회사인 박스베리(Boxberry)의 알렉세이 사폰(Aleksey Sapon) 물류배송서비스부 부장은 빠른 운영속도, 대량 및 다종류의 상품단위별 분류 그리고 Door to door를 전자상거래용 창고운영의 특징으로 꼽음

- 전자상거래용 창고는 직원들이 짧은 시간 내 고객의 주문을 받아 배송 경로를 결정하고, 문 앞까지 배송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이러한 주문을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리적 및 소프트웨어적인 창고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창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자원 및 인력의 부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각 고객을 위해 배송과정을 실시간으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김엄지 연구원 북방·극지연구실
(051-797-4776, umjikim@kmi.re.kr)

참고자료

- a) <https://sitmag.ru/article/24984-avtomatizatsiya-dlya-e-commerce>(검색일: 2020년 4월 1일)
- b) <https://e-pepper.ru/news/elektronnaya-kommertsiya-2019-2020-15-osnovnykh-trendov.html>(검색일: 2020년 4월 1일)
- c) <https://webtu.ru/blog/15-trendov-e-commerce-2019/>(검색일: 2020년 4월 1일)

우즈베키스탄,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철도 통해 수출 개시

■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O'zbekiston Temir Yo'llari)는 3월 31일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선(Baku-Tbilisi-Kars Railway)을 통해 터키로 컨테이너 수출을 시작했다고 발표

- 수도 타슈켄트(Tashkent) 근교 올말리크(Olmaliq)에 위치한 채광야금 콤비나트(JSC Almalyk Mining & Metallurgy Combine)가 수출을 발주하였으며, 수출될 컨테이너는 총 90량임. 화물 운송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의 자회사 우즈베키스탄철도컨테이너(JSC Uztemiryulkonteyner), 국영 우즈베키스탄철도운송(SE Uzbekzheldorexpedicia)가 담당함
- 또한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BTK 노선이 지나는 3개국(터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외에도 러시아, EU,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철도를 활용한 화물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우즈베키스탄 국가 특별 위원회는 항공, 도로 및 철도 등 모든 국제 노선의 운영 중단을 선언한 바 있음. 다만 우즈벡 교통부는 국가 간 교통 차단 정책은 여객 수송 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화물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터키 행 컨테이너들은 정밀한 검역 작업을 앞두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BTK철도 연결 배경에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핵심인 중부 회랑(Middle Corridor)의 루트 다변화와 이에 대한 경유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

- 2019년 11월 처음으로 철도 컨테이너 화물이 중국 시안(西安)을 출발,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마르마라이 해저 터널(Marmaray Tunnel)을 통과하여 체코 프라하까지 운반됐음
- 내륙국이자 유럽과의 철도 연계를 도모하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흑해를 경유한 중부 회랑 철도 운송 성공에 주목하게 되었음. 그에 힘입어 2019년 12월 22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 철도공사의 사장들이 타슈켄트에서 회동하였음. 5개국 철도공사 사장들은 해당노선 경유화물에 대한 공동 운임 요율 적용 및 철도와 항만시설의 연계에 대해 합의하였음
- 해당 루트는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지 않음. 노선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카슈가르(Kashgar)를 출발, 키르기스스탄 오쉬(Osh), 우즈베키스탄 안디잔(Andijon)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크멘바시(Türkmenbaşy) 항에 일차적으로 도착하는 노선임. 이후 화물은 페리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 알라트(Ələt) 신항에 하역되어 BTK 철도선에 환적, 최종적으로 터키 내수시장 및 유럽, 지중해 지역으로 진출하게 됨

그림. 5개국 철도공사 회의에서 논의된 중부회랑 다변화 루트



자료: <http://google.com/maps>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uz.sputniknews.ru/economy/20200331/13808674/Konteynernyy-poezd-s-eksportnoy-produktsiey-Uzbekistana-otpravilsya-v-Turtsiyu.html> (2020.3.31.검색)
- b) <https://www.railfreight.com/beltandroad/2020/01/16/new-route-on-middle-corridor-china-to-europe/?gdp=accept> (2020.3.31.검색)
- c) <http://adycontainer.com/development-of-international-multimodal-route-discussed-in-tashkent/> (2020.3.31.검색)



주요 통계



표 1. 2019년 12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12.29 (+1.8%)	7.14 (+0.3%)	19.43	+1.3%
북극해	2.6 (+0.6%)	6.13 (-2.7%)	8.72	-1.5%
발트해	8.89(-0.9%)	11.74 (-1.1%)	20.64	-1.0%
아조프-흑해	9.17 (+2.0%)	14.82 (+0.0%)	23.98	+1.0%
카스피해	0.29 (+2.6%)	0.41 (-5.9%)	0.7	+3.2%
합계	33.23 (+1.0%)	40.24 (-0.6%)	73.47	+0.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portnews.ru/news/288413/> (검색일: 2020. 3. 20)

표 2.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57,912.1	1,057,232.2	357,092.0	1,044,068.2	820.1	13,164.0
광물 제품	1,649,738.8	436,559.5	1,629,082.1	125,919.7	20,656.7	310,639.8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87,385.4	112,461.3	1,387,267.8	112,417.7	117.5	43.6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673.7	752,268.8	3,850.7	744,393.9	823.0	7,874.9
가죽원료, 모피 제품	36.0	20,757.0	26.1	20,511.3	9.9	245.8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06,036.0	93,723.2	105,857.2	92,173.2	178.8	1,550.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200.8	311,379.5	110.5	305,473.2	90.3	5,906.3
금속 및 금속 제품	35,929.1	682,979.8	35,795.9	667,699.6	133.2	15,280.2
기계류	266,960.6	4,511,042.9	244,270.7	4,499,061.2	22,689.9	11,981.8
기타	467,687.5	516,245.3	440,888.8	513,774.7	26,798.7	2,470.6
합계	2,889,174.5	8,382,188.3	2,816,973.9	8,013,075.0	72,200.6	369,113.4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 (검색일: 2020.3.20)

표 3.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 생물	3	362.5	4	442.2	3	362.5	4	442.2	-	-	-	-
냉동어	108,005	2,098,303.5	1,885	50,582.0	107,876	2,097,570.8	1,885	50,582.0	129	732.8	-	-
연어류	11,513	378,792.9	-	-	11,502	378,537.9	-	-	11	255.0	-	-
넙치	140	30,445.5	-	-	140	30,445.5	-	-	-	-	-	-
가자미	1,460	16,305.0	-	-	1,460	16,305.0	-	-	-	-	-	-
가자미류	1,766	35,332.3	-	-	1,766	35,332.3	-	-	-	-	-	-
청어	35,915	112,421.4	-	-	35,797	111,962.6	-	-	119	458.9	-	-
대구	3,037	197,401.6	-	-	3,037	197,401.6	-	-	-	-	-	-
명태	49,212	953,818.1	-	-	49,212	953,818.1	-	-	-	-	-	-
농어	75	2,136.9	-	-	75	2,136.9	-	-	-	-	-	-
간, 곤이 (어란)	836	263,159.2	-	-	836	263,159.2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428	16,378.3	-	-	428	16,378.3	-	-	-	-	-	-
생선 필렛, 어육	593	154,691.5	83	4,364.5	587	154,676.8	83	4,364.5	7	14.8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12	1,781.7	123	5,994.3	112	1,781.7	123	5,994.3	-	-	-	-

갑각류	6,690	1,116,114.2	73	2,893.5	6,690	1,116,114.2	73	2,893.5	-	-	-	-
계류	5,530	1,017,648.9	-	-	5,530	1,017,648.9	-	-	-	-	-	-
조개류	4,014	121,517.0	-	-	4,014	121,517.0	-	-	-	-	-	-
가리비류	25	12,183.4	-	-	25	12,183.4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3,910	78,145.1	26	2,957.3	3,910	78,145.1	26	2,957.3	-	-	-	-
수산 무척추 동물	1,174	34,369.2	-	-	1,174	34,338.8	-	-	0	0	-	-
해삼류	253	7,416.7	-	-	253	7,386.3	-	-	0	0	-	-
성게류	919	26,385.4	-	-	919	26,385.4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검색일: 2020.3.20)